

# 축산기자재 산업과 양축농가의 비례적 발전을 통해 상생의 발판 마련



고명근 회장

- 1985. 신일축산기구상사 설립(주식회사 근옥 전신)
- 2005. 주식회사 근옥 회장
- 2015.3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회장

지난 3월 24일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제 10대 회장에 축산 환기시설 분야의 장수기업인 주식회사 근옥의 고명근 회장이 취임했다. 본지를 통해 취임 이후 첫 인터뷰를 진행한 고명근 신임 회장의 그간의 활동 및 앞으로 협회 운영 방안 대해 들어보았다.

## 회장님, 그동안 활동이 궁금합니다.

저는 '85년 충남 논산에서 신일축산기구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을 시작해 '05년 주식회사 근옥으로 법인을 전환하여 30년간 축산환기 및 시설을 제작·연구·판매하고 있습니다. 토탈환기시스템, 쿨링시스템, 배기팬 등 양계용, 양돈용, 산업용 등 다양한 환기 시스템으로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국내 축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3월 24일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이하 기자재협회) 제 10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본 협회는 축산업용 시설, 기계 및 기구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설립됐고, 현 회원사는 70개 업체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 취임 이후 현재까지 활동사항은?

최근 6월말 회원사 및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간 정보교환의 초석이 되도록 회원사간 간담회는 2개월, 이사회는 3개월, 사안에 따른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하여 회원사간 소통 중심으로 결속 강화와 신규 회원사 배가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FTA대비 축산업 세법 개정안을 건의했습니다. 기자재협회 회원사와 단체에서 요청한 20여 품목을 시장규모, 가격 등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축산기자재 영세율 부가세 환급 기간을 오는 '17년으로 연장하고 착유기 라이너, 분만실 깔판, 대인소독기, 방역복 등 4개 품목을 추가로 부가세 환급 품목으로 정부에 건의 확정했습니다.

## 기자재협회에서 이번에 '축산기자재 가격정보집'을 발간했죠?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축산기자재 업체별, 품목별 현황 조사를 통해 제품에 대한 성능 향상 및 표준화 유도과 가격 비교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본 협회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축산기자재 가격정보집 양돈편'은 7월에 발간했습니다. 이후 오는 12월에는 '축산기자재 가격정보집 가금편', 내년 6월에는 '축산기자재 가격정보집 대가축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제품별 상호 비교평가를 통한 제품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정보 교류 기반 구축과 축산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제품을 분류 수록하여 농가들이 새로운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9월 9일부터 4일간 대구에서 개최되는 '201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현장에서 무료로 배포하여 농가에서 기자재 구입 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본 협회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우수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하며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기자재 산업과 양축농가의 비례적 발전을 통해 서로 상생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